



희망의 세상은 함께 열어 가는 것입니다.

마웅 저(Maung Zaw) 난민 신청자



1988년 8월 버마 양곤 시내의 중심에 모여든 인파

버마는 1948년 2월 4일 영국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1962년까지 민주국가였습니다. 그러다 1962년 3월 2일 갑작스런 군부의 쿠데타로 군사령관 네윈(Nay Win)에 의해 버마식 사회주의(우리는 이를 독재의 다른 이름이라고 봅니다.)라는 이름으로 26년의 철권통치와 쇠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버마는 130여 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입니다. 1962년 이후 다양한 소수민족은 군

부에 대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오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시작한 이 싸움은 21세기인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버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쌀의 최대 생산국이었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많은 자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국제적 식견과 교육열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네윈의 쿠데타 이후 정치, 경제, 교육, 보건 그리고 인권 등 사회 전반에서 하나씩 돌씩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네윈 정권 하인 1987년에는 UN이 정한 세계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1987년 군부는 합당

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대부분의 화폐에 대하여 취소 조치를 내림으로써 저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돈이 하루 아침에 종이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울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풍요의 땅에서 빈곤의 땅으로

1988년 3월에 한 음악 찾집에서 신청한 음악에 대한 불만으로 동네 청년들과 시비를 벌이던 양곤 공과대학 학생들 중에서 마웅 폰 모(Maung Phone Maw)와 마웅



소 나인(Maung Soe Naing)이 이를 말리던 시위진압 경찰에 의해 구타당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로 양곤대 학생들은 시위를 벌였고, 경찰에 의해 사상자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는 1988년 8월 8일 최고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8년 8월 8일 항쟁은 버마의 민중항쟁이며,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아시아인의 힘을 보여준 하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8888항쟁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버마의 전 국민이 민주화 봉기에 나선 것입니다. 공무원, 변호사, 교수, 의사들 그리고 다른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대에 속한 이들도 이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와중에 군부의 서 마웅(Saw Maung) 장군은 국가가 위기상황이라며, 1988년 9월 18일에 군부 내 재 쿠데타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1990년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이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5월 27일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신군부는 ‘국민연합당(National Unity Party)’ - 이전에 26년 간 통치했던 단일 정당인 구 ‘버마 사회주의정책당(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으로 알려짐- 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민주세력은 1988년 9월 원로정치인, 군 지휘관 출신 인사, 교수, 변호사, 소수민족 등 주요 민주화 운동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창설하게 됩니다.

신군부는 ‘민족민주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1989년에 체포하였으나, 국민들은 1990년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에게 82% 이상의 놀라운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러나 군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족민주동맹’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며,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원 중 100여 명 이상을 구속하게 됩니다.

8888항쟁과 90년 총선 그리고 쿠데타

현재 의원 20여 명과 지식인, 기자, 학생 등 1,500여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 데파인(Depayin) 지역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와 동행하던 지지자들이 야간에 피습을 받고 25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가 하면, 아웅산 수지 여사는 19개월 만에 다시 가택 연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89년에 처음 가택 연금되었던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금까지 총 3번의 가택 연금을 당했으며 그 기간은 1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UN은 1994년부터 버마 정부에게 90년 총선을 인정할 것, 인권·종교·노동·정치 등 탄압을 중단할 것, 아웅산 수지와 민족민주동맹 및 소수민족의 대표들과 성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기구 창설 이후 최초로 국가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이는 아이들, 노

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군부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보인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국제 사회의 노력은 8888항쟁 이후 미국, 유럽 연합(EU), 스칸디나비아연방 등을 중심으로 군부에 대한 경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버마 국민들의 노력은 단순히 민주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버마 민주화 세력은 130여 개의 다양한 소수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연대와 지지를 기대한다.

한국의 현대사와 버마의 현대사는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식민지 경험, 군부독재의 경험 그리고 전 국민적 항쟁의 경험 등.

1961년에 박정희 씨가 한국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1962년에 네윈 씨가 버마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80년 5월의 광주를 총으로 막았던 한국의 군부, 87년 국민적 항쟁에 대한 6·29선언, 88년 8월의 양곤의 피



▲ 총으로 진압하고 있는 군인들
▼ 1988년 9월 17일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날의 시위 도중 총에 맞아 괴로워하는 학생

그리고 90년 총선 약속과 약속 불이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박정희 씨와 네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악령은 아직도 아시아를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악령을 쫓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지지 그리고 연대일 것입니다. 저는 촛불 시위를 통해 그 가능성과 연대의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버마 국민들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의 길고 짧은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인권을 위

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가는 여정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연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경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인권과 평화를 위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웅 저(Maung Zaw)

난민신청자 마웅 저(Maung Zaw)는 1969년 6월 30일 버마에서 출생하여, 87년 고등학생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거쳐 현재까지 버마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버마 학생운동 조직과 학생 정당에 가입, 활동 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1994년 한국에 입국하여 부친의 미얀마 공동체 활동과 NLD-LA 한국 지부 활동을 거쳐 현재는 APEBC(ASSISTANCE PROGRAM FOR EDUCATION OR BURMESE CHILDREN)이라는 태국 버마국경지역의 아이들 교육문제를 지원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는 NGO대학원에서 청강생 자격으로 2학기 째 공부를 하고 있다.